기독교회의 방생법회

(막1:14-20)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독교회의 방생법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방생법회는, 방생이라는 말도 그렇고 법회라는 말도 그렇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회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또 각종 행사를 하는 것,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법회입니다.

좁게는 불법(佛法)을 강론하는 모임이고 넓게 보면 승려와 신도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행사를 법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방생법회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잡힌 생물들을 다시 잡혔던 곳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산에서 덫으로 산토끼를 잡았다면, 방생법회라는 것은 그 산토끼를 산에 놓아주면서 그 토끼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다시 붙잡히지 말고 자기의 생명을 잘 살아서 인간으로 윤회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는 공덕을 쌓아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전생에 인간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보가 있어서 축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아서 놓아주는 거예요.
만일에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았다고 하면 바다에 놓아주는 겁니다.
자라를 잡았다, 자라를 놓아주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팔월대보름에 행하는 방생법회라고 합니다.
TV 같은데서 보면 그 방생법회에 참여한 신도들이 자라 같은 것을 사서 놓아주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것들을 돈 주고 사기 위해서 방생계까지 조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생법회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들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여지는 모든 행사가 마치 불교의 방생법회를 연상하게끔 하는 성격으로 지극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고기 잡던 그물을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를 또한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기독교에서 처음 나오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에 의해서 낚인 사람

들이 모인 곳이고, 동시에 여전히 낚인 사람들로서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을 낚아서 모여져 있는 교회가 방생법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낚인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낚았다고 하는 행위의 효과가 무효화 되게끔 하는, 다시 놓아줘버리는 그러한 방생법회로 교회의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가 방생법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겁니다.
낚으면 뭐합니까? 다시 놓아주고 있는데…
자, 산에서 잡은 토끼를 산에다 놓아줍니다,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강에다 놓아주고, 바다에서 잡은 자라를 바다에 놓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낚아서 교회에 모아놓고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행사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낚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떠돌아다니며 놀고 있던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그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집에 갖고 가고, 시장에 내놓고 합니다.
이처럼 낚았다는 것은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낚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낚았다가 다시 놔주는 것은 직업으로 어부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방생법회를 하는 겁니다.
낚았으면 낚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처음에 말했어요, '회개하라', 무얼 회개하라는 겁니까?
어떤 상태가 근본적으로 끝이 나는 게 회개입니까?
이 세상의 경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내 굶주린 마음의 배를 채우고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행복과 기쁨은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짐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굶주린 배를 채워서 행복해지고 기뻐지려고 이 사회 안에서 정해진 가치들을 찾아 떠도는 유령들처럼 살고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중단하

는 겁니다.

그러므로 낚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 떠돌아다니던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낚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갖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었어요, 14절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 왔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가복음 처음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좌가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vailable 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 천국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천국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천국에서 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실재 천국,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부활해서 갈 그 천국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낚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로 마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떠돌아다니고 있던 사람의 마음을 낚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천국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다는 얘기를 흔히 상식적으로 교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다, 참 잘됐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영혼이 잘된 거다'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이 세상 경계 안에서 범사가 잘된다.'
돈 버는 일에 손대면 돈 버는 일이 잘될 것이고, 자식들이 공부하는 일에 손대면 공부가 잘될 것이고,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될 것이고, 사람관계가 잘될 것이고…
이 세상과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가치평가를 해버린 좋은 것들, 이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얻고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다시금 마음을 이 세상의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세상 바다로 다시 방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인도합니다.
이것은 사기요, 강도이고, 영적인 살인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독교가 지켜야 될 것은 교인들의 마음을 그 비어있고 굶주려 있고 허기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까이 이 세상 경계 바깥으로 끌고 온 이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엣 것을 찾으라, 아랫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엣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소망은 죽은 다음에 갈 것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고, 믿는다고 착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경계 안에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돈 버는 일, 부자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노골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고전적인 명분을 들먹입니다.
이타적인 삶이라든지 애국 애족, 이런 것들.
이게 다 사기에요, 사기.

아주 교묘한 명분을 만들어 냅니다.
'야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탁월한 통찰력으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역으로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모토로 삼으시더라고요.
참 교묘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그런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한번 보람되게 해보자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 경계 안에서 어쨌든 고전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봉사정신이 가득한 명분으로 꿈과 비전을 삼더라도 그게 다 사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경계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불교의 방생법회와 똑같습니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온 천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사람을 낚는 겁니다.

돈이 좋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돈이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돈이 좋다고 여기는 건 줄 아십니까?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빙의되어서 돈 자체를 좋다고 여기게끔 만든 것이고, 그게 바로 선악의 분별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빙의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방생법회, 세상에서 기껏 잡아서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갖고는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놔줘버립니다, 왜 이런 방생법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다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처럼 오해가 많은 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은 겉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갑니다.
또, 예수님을 앞세운 사람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세운 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님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다는 것에 대단한 의미부여를 하려고 해요, 주석서들을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물을 버린 것은 의미부여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앞잡이로 세운 것입니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으로 스카우트 된다는 그 의미뿐입니다, 예수님께 취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있던 이 세상 경계 안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에서 생긴 소원들과 꿈들,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세운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부로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스카우트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 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쥘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거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앞세운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이 세상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까지 따라 들어가고, 장사지낸 곳까지 마음이 따라 들어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따라갑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십 일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가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말을 날마다 수행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오늘의 번제를 드리지 않고도 교회로서 존속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앞잡이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꿈을 갖고 있던 나,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나, 그 비전이 이타적이고 고전적인 명분에 가득 찬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나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요, 그게.
거기에는 꿈도 이상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관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해서 마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방생법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로 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저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있어야 이 세상에서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을 찾아 떠돌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바다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령 같은 영혼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천국에 가 있는 마음이라야 낚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완전히 천국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시간마다 천국으로 가버린 자만이 이 세상 경계 안에 갇혀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마음을 낚아서 똑같이 천국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꿈, 이런 것은 우리의 job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job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job이에요, 우리의 job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job은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이 세상 경계 밖으로 끌어오신 천국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하나님을 성령의 교통하심에 힘입어서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체감하고,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job이에요.
그리고 몸이 살아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job입니다.
우리가 마음 쓰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불교의 방생법회의 현장이 되었습니까?
사람을 기껏 교회 안으로 낚은 다음에 다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잡아서 세상으로 다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서부터 잘못되고 있습니까?
‘따르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따르기’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세상 안에서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갔기 때문에 교회는 방생법회의 현장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께서 가까이 끌고 오신 천국으로 들어가 굶주린 배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아버지로 불러지고 그렇게 기쁜 자로서, 천국에 자리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낚아내는 진정한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인으로서 더 이상 방생법회를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앞세운 삶이 중단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곧바로 밀착하여 따라감을 통하여 진정한 어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